

사회



“광주 김치 맛 최고” 24일 오후 광주시 북구 중앙공원 내 김치담그기 체험관에서 열린 ‘삼성전자와 함께하는 김치사랑 나눔 메세나’에서 강운태 광주시장, 스티븐슨 주한 미국대사 등이 직접 담근 김치를 들어보이고 있다. 제17회 세계김치문화축제는 오는 27일까지 계속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우리 환경미화원인데요...”

식당가 돌며 야외회 금품 찬조 요구 사기 조심

최근 광주지역에서 환경미화원을 사칭해 2~3명씩 상가를 돌며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광주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11시께 광산구 수완동 A상가에서 식당 주인에게 환경미화원을 사칭하는 사탕들이 찾아와 야외회 찬조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20일 오전 10시30분에는 동구 산수동 B상가에 환경미화원업체 직원을 사칭한 2~3명이 찾아와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금품을 요구하는 등 이달 들어 10여건에 이르고 있다.

환경미화원 모자와 작업복, 안전화 등을 착용한 이들은 상가 주인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제때 수거하지 않으면 상가 주변에 악취가 나는 것을 우려한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추석이나 설, 야외회 기간이면 이런 신고가 종종 들어온다”며 “구 소속 환경미화원은 금품을 요구하는 일이 없으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면 차량번호 등을 파악해 즉시 경찰서나 구 청소행정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화순군청 취직” 3억 받은 50대여성

징역 1년6월·추징금 1억1천만원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송혜영 판사는 24일 화순군청 취업청탁을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조모(여·56)씨에 대해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는 안정적인 직장을 얻기를 원하는 서민의 희망을 악용해 취업대가로 3억여원을 받았고, 피해액 전부를 반환하지 않아 심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전완준 화순군수의 측근인 오모(63·구속)씨와 함께 지난 2008

년 11월 초 지인에게 “딸을 군청에 취직시켜주겠다”며 4000만원을 받는 등 8차례에 걸쳐 모두 3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기소했다. 간병인인 조씨는 오씨의 어머니를 간병하는 등 오씨와 친분을 쌓아 오다가 취업 희망자들에게 접근해 돈을 받기로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전 군수의 참모인 오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추적을 하던중 거액의 ‘뒷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다문화가정 가장 이혼 뒤 자살

40대, 우울증으로 고통

국제결혼에 실패한 뒤 우울증을 앓아오던 40대 남성이 실종 6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24일 오전 9시45분께 한모(41)씨가 장흥군 장평면 청룡리 청룡저수지에서 숨겨있는 것을 수색작업을 하던 경찰이 발견했다. 한씨가 발견된 저수지 인근에는 한씨의 신발과 휴대전화가 놓여 있었다.

경찰은 지난 22일 한씨의 아버지(73)로부터 “지난 19일 밤 10시께 집을 나간 아들이 연락이 되지 않고, 집에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받은 뒤 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한씨가 지난 2008년 국제결혼을 한 아내와 이혼한 뒤 우울증이 심해졌다”는 가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한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니라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민노당 가입 교사 134명 파면·해임 될 듯

교육과학기술부가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불법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134명에 대한 파면·해임을 이달 안으로 완료하라는 지침을 전국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전교조가 일선 조합원을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교파부는 21일 열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에서 ‘법원 판결과 관련 없이 10월 말까지 중징계를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전교조 임민용 대변인은 “각 시도교육청은 교파부 지시에 따라 관련 교사들이 29일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25일 일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전남도교육청에서 민노당 가입과 당비 납부 등으로 징계가 요구된 교사는 광주 3명(초등 2명·중등 1명), 전남 3명(초등 1명·중등 2명)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나원침 (8151) 김중두



화물차·승용차 충돌
광산서 6명 중·경상
24일 오전 8시45분께 광주시 광산구 임곡동 용진교 인근 도로에서 이모(37)씨가 몰던 세피아 승용차와 이모(52)씨의 1t 화물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이씨 등 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 2곳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두 운전자 중 누군가 중앙선을 침범하다 마주 오던 차를 피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양 측 운전자와 동승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중환기자 galee@

청소년 알바사이트 20명 입건

경찰청은 유류업소 아르바이트 소개사이트나 키스방 홍보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지 않은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최모(여·38)씨 등 20명을 입건했다. 24일 밝혔다. /연환뉴스

50대 영남男 찜질방서 여성 몸 더듬

○찜질방에서 잠자고 있는 여성의 몸을 만진 50대 가 잠에서 깨 피해 여성의 신고로 경찰사형. ○24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강모(50)씨는 이날 새벽 4시55분 광주시 남구 봉선동 한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전모(여·31)씨의 가슴 등을 손으로 더듬었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강씨는 이날 찜질방 내부를 돌아다니던 중 친구 1명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전씨를 발견, 이불로 덮여 주위의 눈길을 피한 뒤 ‘뭇뚱’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강씨에 대해 준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F1 취재진 ‘러브 모텔’ 엇갈린 반응

伊신문 기자 “각종 성인용품 등 비치 낮뜨겁다”

목포서 묵은 ESPN “인터넷 공짜 등 시설 좋아”

2010 포뮬러 원(F1) 코리아 그랑프리 대회동안 광주·전남지역 숙박 시설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해외 취재진들이 광주와 목포의 모텔을 이용한 뒤, 숙박시설에 대해 서로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 취재진의 경우 “F1 팀들, ‘러브 모텔’에 묵다”라고 혹평한 반면, 미국 취재진은 “이곳 모텔이 어때서”라고 정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탈리아의 대표적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는 지난 22일 ‘F1 팀들 섹스 모텔로 떨어지다-팀 관계자와 기자들은 러브 스캐어에 집 풀다’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숙소문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 신문의 플라비오 바네티 기자는 영암발로 쓴 기사에서 “경기장 인근에 제대로 된 숙박 시설이 없어 영국

의 윌리엄스 팀의 경우는 자동차로 1시간 반 이상 걸리는 광주로 가 ‘러브 스캐어(Love Square : 러브호텔 밀집지역을 의미)’ 근처에 진을 쳤다”고 전했다. 그는 “러브 모텔들은 우후죽순처럼 많지만 더럽고 불결하다. 시간 당 요금을 받는 이 모텔들의 방은 두 명이 동시에 할 수 있는 샤워 시설도 갖췄다(아주 실용적이라고? 결코 아니다. 두 명이 관계를 가지고 빨리 방을 빼기 위해서다). 이 방에는 필수적으로 비치된 것이 콘돔이고 가구는 없다”고 묘사했다. 그는 이어 “한 영국 기사는 저녁에 방에 돌아와서 자신이 있던 동안에 누군가 방을 사용한 흔적을 강하게 느끼기도 했다”며 이른바 ‘대실’을 거론했다.

24일 이탈리아 신문이 지적한 광주 지역 모텔지구를 직접 가보았다. 이날 오전 11시 광주시 서구 치평동 A모텔. 이 곳에는 F1을 보러온 외국인 10여명이 투숙하고 있다. 흥동이 전부인 객실 복도는 어두컴컴했다. 한 쪽에는 19세 미만 시청금지 비디오 테이프·DVD와 성인용품 자판기가 비치돼 있었다. 콘돔도 눈에 띄었다. 이탈리아 취재진이 지적한 대로 서너 시간 투숙한 뒤 객실을 나가야 하는 ‘대실’도 성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F1 취재를 위해 입국한 미국 스포츠 전문채널 ESPN의 마이크 서튼 기사는 ‘한국의 첫 인상’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자신이 머물게 된 숙소에 대해 묘사했다. 서튼은 “목포에 도착해보니 한 지

역에 러브호텔이 30여개나 몰려 있어 이상했다. 그러나 러브호텔이긴 했지만 깔끔했고 42인치 TV에 인터넷도 공짜였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같은 날 오후 3시께 F1 경기장에서 12km 떨어진 목포시 하당동 한 모텔. 복도는 대낮처럼 환했다. 객실에는 42인치 벽걸이 TV·최신형 컴퓨터가 설치돼 있었다. 1인용 침대 2개가 50cm 간격을 두고 나란히 놓여 있었다. F1 대회를 앞두고 예산 5000만원을 투입, 리모델링을 한 것이다. 외국인들을 위한 세탁 서비스도 해주고 있었다. F1 경기 전에 성인방송은 미리 차단했고, 각종 성인용품은 객실과 복도에서 뺐다. 이날 인근에 위치한 숙박시설 30곳 중 5곳을 둘러봤지만, ‘러브모텔’이라고 보다는 저렴한 호텔이라는 느낌이 강했다. 이 모텔 주인은 “우리 고향에서 국제 대회를 여는데, 외국인들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 내부시설을 바꿨다”면서 “외국인 대다수가 ‘깔끔하고 쾌적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국립대병원들 수백억 수당 빼먹기

전남대병원 3년간 연차수당 등 62억 부당 지급

전남대와 서울대 등 국민의 신뢰도가 높은 국립대병원들이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자유 선진당) 의원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전북대·전남대·충남대·경북대·부산대병원 등 6개 국립대병원은 최근 3년간 ‘연차보전수당’과 ‘시간외수당’ 등의 명목으로 총 529억원의 수당을 부당 지급했다. 국립대병원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토록 돼 있으나 이들은 이를 무시하고 ▲주 5일근무제 도입으로 연월차수가 일수가 줄어

기준에 반한 ‘연차수당’이 감소한다는 이유로 ‘연차보전수당’을 신설해 281억원을 부당지급하고 ▲근로기준법과 달리 자체 부수규정을 만들어 시간외수당 248억원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 같이 지난 3년 동안 부당한 연차보전수당·시간외수당 등을 통해 서울대병원이 가장 많은 298억원을 전북대병원은 68억원, 전남대병원은 62억원을 부당지급했다. 충남대병원(37억원)·경북대병원(35억원)·부산대병원(29억원) 등의 순이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공군들 쓰레기 줍고 무료 진료 ‘주민 곁으로’

제1전투비행단 자원봉사 축제

공군 제1전투비행단은 지난 23일 광주시 광산구 일원에서 대규모 환경정화활동 및 농산물 사주 시 운동 등 ‘제4회 공군 자원봉사 축제’ 행사를 벌였다. 이날 행사는 광산구 일대의 거리와 어등산 등산로 등에서 장병 2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총 4t 가량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또 황룡강변 일대에서는 지난 장마와 태풍 때 쌓인 쓰레기 2t

가량을 수거했다. 1전비 군의관 및 진료요원들은 부대 인근의 신노당 경로당을 찾아 무료 의료 상담 및 진료 활동을 벌였다. 아울러 1전비 지휘관 및 참모 가족들은 이날 ‘송정5일장’을 방문해 지역 주민들이 직접 시장에 내놓은 농산물을 구매했다. 1전비 관계자는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는 것 외에도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 역시 보람이 크다”며 “앞으로도 지역민을 위해 봉사하는 부대상을 구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www.hanbitgosi.co.kr
최다수강생
최다합격률
최고의시설
최강교수진
7·9급 행정직/세무직/법원직/검찰직
교행직/농업직/기술직/소방직/교정직
호남최대 7·9급 공무원시험전문학원 — 개강 11월 1일 주야, 종합/단과
한빛고시학원
전남대 북구청 앞 (062) 252-0252
직영학원 김영면입학원 227-8088